



▶ '패터슨'

### '패터슨'·'리틀 포레스트' 인기

## 극장가 '소확행' 바람 분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미국 뉴저지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기사 패터슨의 일상은 단조롭다. 매일 비슷한 시간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가 귀가하면 애완견 마빈과 함께 산책에 나선다.

동네 바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와 잠자리에 든다. 주말이면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구경한다. 패터슨은 사회적 지위나 넓은 집 같은 세속적 가치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노트에 적어보는 시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집 자무시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패터슨'의 주인공 패터슨(에덤 드라이버 분)은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小確幸,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개봉해 6만 관객을 불러들인 '패터슨'에 이어 한국영화에도 소확행 바람이 불고 있다.

'리틀 포레스트'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관객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준다.

임용고시에 떨어진 해원(김태리)은 어느 겨울 날 가장 하나만 메고 낙향한다. 악다구니 써야 하는 서울에서 잠시 벗어날 생각이었다. 해원은 직접 집어준 농작물과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옛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계절을 꼬박 보낸다. 이듬해 가을쯤, 삶과 세상을 예전과 달리 보는 눈이 트인다.

22일 개봉하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이솝) 역시 도시생활에 지친 청춘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일당 4만5천원의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미소는 해원과 달리 도시에 남되,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미소는 집을 포기한다. 월세방 대신 위스키와 담배, 공작 기속사에 사는 남자친구가 미소의 안식처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잠자리를 구해보려 찾아가던 대학 시절 밴드 멤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딱히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점심시간에 스스로 팔뚝에 링거를 꽂아 가며 일하고, 아파트 대출금과 이자에 일상을 저

### 지친 일상 속 작은 행복 담아

### 20대 관객 공감·호응 이끌어

### '리틀 포레스트' 80만명 돌파

### 영화 장르·소재 다양성 기대

당잡힌 채 산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는 16일까지 125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순제작비 15억원인 이 영화는 개봉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손익분기점 80만명을 넘었다. 100억원 넘게 들인 대작이 줄을 잇는 한국영화계에서 '리틀 포레스트'의 손익분기점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다. 범죄·액션물 일색인 한국 상업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전고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소공녀'는 독립영화 창작집단인 광화문시네마가 제작했다.

'리틀 포레스트'에는 영화 속 인물들과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20대 관객이 반응하고 있다. CGV리서치센터 집계 결과 개봉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리틀 포레스트' 관객 중 49.0%가 20대였다. 같은 기간 전체 영화의 평균 40.1%보다 높았다. CGV리서치센터의 지난해 관객조사에 따르면 20대는 기존 액션·범죄물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관객층으로 꼽힌다.

김익서 영화평론가는 "영화산업의 건강성을 따질 때 천만 영화에 주목하기보다는 중저예산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는지, 신인감독이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상업영화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특정 장르와 소재를 선호하다 보니 관객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리틀 포레스트'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리틀 포레스트 : 사계절'도 소확행 바람을 타고 22일 관객을 찾는다. 모리 준이치 감



리틀 포레스트



소공녀

독의 '리틀 포레스트 : 여름과 겨울', '리틀 포레스트 2 : 겨울과 봄'을 한 편으로 합친 감독판이다. 일본에선 DVD로만 발매돼 국내 영화관에서 먼저 선보이게 됐다.

2015년 국내 개봉한 전작 두 편은 각각 1만명 안팎의 관객이 찾았다.

이들 영화를 수입·배급한 영화사 진진 관계자는 "전편들을 많은 상영관에서 개봉하지 않았지만 일작 만화 팬들이 여러 번 관람하는 등 알차게 흥행했다"며 "윤식당"이나 '호리네 민박' 등 비슷한 콘셉트들이 사랑받고 있어 봄에 맞춰 개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BS 2TV '같이 살래요' 첫회 시청률 20%

### '황금빛 내 인생' 후속

'황금빛 내 인생' 후속작에 대한 기대는 컸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한 KBS 2TV 주말극 '같이 살래요'(사진) 첫회 시청률은 23.3%로 집계되며 시작부터 20%를 훌쩍 넘었다. '같이 살래요' 첫회에는 '황금빛 내 인생'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1회에서 4남매의 아버지 박효섭(유동근 분)과 효섭의 첫사랑이었던 이미연(장미희), 재벌가에 시집간 둘째 딸 박유하(한지혜)의 사연이 주로 그려졌다. 첫회 방송 후 다수 시청자는 초반부터 몰



어치는 전개를 보여줬던 '황금빛 내 인생'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아쉽다는 평도, 좀 더 지켜보자는 평도 있었다. 특히 효섭과 미연의 종전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는 시선이 많았다. /연합뉴스

## “신의현 금메달도 못 봤다”

## 지상파 패럴림픽 부실중계 논란

“중계를 늘려주셨으면 한다”던 신의현 선수가 결국 금메달까지 안겼지만 시청자들은 그 순간도 볼 수 없었다.

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신의현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우승한 전날 오후 1시 25분, 그 시간 지상파 3사는 모두 장애인 아이스하키 중계에서 3·4위를 결정하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다.

전날 신의현의 금메달은 한국 대표팀이 1992년 알베르빌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한 이후 26년 만에 획득한 것이었지만, 지상파는 모두 이를 외면했다.

지상파 3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주요 드라마와 예능을 결방했다는 핑계로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태세를 전환해 각종 새 드라마와 예능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려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행사는 패럴림픽 폐회식까지 마쳐야 완전히 마무리되지만, 국내 방송 중계로만 보면 이미 오래전에 끝난 분위기다.

시청자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중계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경기 중계가 외국보다 부족하다. 중계 시간

을 더 편성해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주로 심야에 '하이라이트' 방송으로만 패럴림픽 소식을 전해오던 지상파들은 생중계 시간을 확대해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프라임타임에는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고수하고 시청률이 낮은 점심때 생중계를 잠깐 보여주는 식이어서 '빚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날 신의현 출전 경기는 낮 시간대였기에 조금만 관심을 쏟았다하면 교차 중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3곳 중 어느 한 곳도 그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아이스하키 중계 시청률은 3사 모두 1%대 정도로 집계됐다.

"시청률이 낮아서 광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상파의 설명은 개최국이 아닌데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미국과 일본 등의 패럴림픽 편성시간을 보면 변명처럼 지나치지 않는다.

지상파 3사는 이날 오후 8시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을 나란히 방송할 예정이지만, 마지막까지 부실 중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S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라디오 로맨스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00 12 MBC 뉴스 20 위대한 유혹자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재)
1	2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재)	00 1%의 우정 (재)	3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20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20 드림 주니어 스페셜 50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10 한식 (재) 15 팔도발상 (재)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15 전생애 헬수들 (재) 55 뉴스콘서트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50 가요무대			
10	5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3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 40 신년특집 생명의 숲 우리 곁에 서다 (재)	10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이웃집 할스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특선 프로야구 선수골프 in Guam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양초보 영어	-화산성의 비밀	14:30 똑딱맨	19:3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커피에드벤처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00 한국기행	09:40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상상보다 멋진 터키 동서고금 이스타불>
07:00 허준이 과학교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진짜 부음림과 대매상결심 무한)	16:00 냉창고 나라, 코코몽	<남쪽으로 튀어 그 섬에 봄이 오면>
07:45 출동! 슈퍼맘스2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가층 제4부 - '다큐영화'이주 오래된 동행)
08:30 플라워링 하트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7:15 로보카 폴리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00 다큐 오늘 (요리단 성지순례)	17:30 마사와 곰	23:55 엄마를 찾자마
09:00 몬카터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7:45 띠띠뽀 띠띠뽀	24:45 지식채널e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리하니1~4	24:5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4부>
		19:00 스파이더맨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음 2월 3일 庚戌)

子	48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판세에 놓인다. 60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72년생 자신에 대해서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라. 84년생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8, 99	午	42년생 이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54년생 목적이 부합하리라. 66년생 군사에 있어서는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78년생 단순화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90년생 조금씩 여려번하자. 행운의 숫자 : 68, 71
丑	49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73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85년생 하향 조질하는 것만이 지성을 높이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87, 94	未	43년생 객관적 타당성만이 소기의 성과를 낳으리라. 55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7년생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으니 밤샘하지 마라. 79년생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91년생 대의를 생각하자. 행운의 숫자 : 72, 51
寅	50년생 사소함에 비로써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62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찬소이다. 74년생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의외의 이변이 보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임하라. 행운의 숫자 : 46, 74	申	44년생 손재수가 비치지 제반사에 조심해야겠다. 56년생 보완할 수 있는 정지가 절실히 요청된다. 68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마라. 80년생 모든 것은 차치하고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다. 행운의 숫자 : 79, 66
卯	51년생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은 걸로 드러나게 된다. 63년생 신중함보다 과감한 행동력이 절실한 때가 되었다. 75년생 발전적인 충동 양상을 띠고 있으니 번거로운은 감수하자. 87년생 실효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7, 10	酉	45년생 일시적인 충동 심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57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다. 69년생 마지막이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81년생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94, 07
辰	5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 없으니라. 64년생 무식도 갈면 바늘이 되는 법이다. 76년생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니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88년생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하라. 행운의 숫자 : 98, 19	戌	46년생 기가 막힌 기회를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지 못하고 허탈해 하는 형상이다. 58년생 제반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70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마에 빠져들 수도 있느니라. 82년생 모순은 철저히 배제하자. 행운의 숫자 : 82, 35
巳	53년생 앞에 불기피한 장애물이 보이니 눈 꼭 보라 뜨고 조심하자. 65년생 미리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77년생 살피보면 어실해 드러날 것이니라. 89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실패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28	亥	47년생 지금 행한다면 흠족하지 않겠으니 후일을 기약하자. 59년생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 71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83년생 전면적으로 나사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7,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